

깊이 새겨주신 뜻

2018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한 메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은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데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아무리 잘 꾸려놓았다고 하여도 그 운영이 모든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인재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의도 없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과학기술보급실들에 꼭꼭 들리시여 그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것이 아니겠는가.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새 기술학습과제를 명백히 준 다음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총화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공장에서 수십명의 종업원들이 원격교육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쟁쟁한 인재들로 준비시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떠밀며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절감하였다.